



## 2017년 신년사

새로운 세계에서 경이로움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여행자에게 만이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삶의 터전일 뿐이다. 행여 혹독한 삶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경관이 오히려 하나의 고통을 안겨주는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하여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매일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자체가 경이롭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 2017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세계로 우리는 여행하려 한다. 그 곳은 또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간의 세계며, 그 시간의 세계가 경이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은, 우리는 다 함께 내일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의 세계에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운과 마주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인생이란 습관이라는 실로 짠 옷감”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실로 짠 어떻게 생긴 옷을 입고 있을까? 구멍은 나지 않았는지, 너무 험령하거나 혹은 딱 쪼이지는 않는지, 옷에서 나는 향기가 아름답지 않지는 않는지, 이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세월의 잘못된 습관으로 오늘의 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분명 내가 입고 있는 현재의 옷은 벗어버려야 한다. 새해에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자는 뜻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생활화 된 사람을 우리는 불자라고 한다. 붓다의 가르침이 습관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실로 짠 옷을 우리는 새해아침에 갈아입고 앞날을 맞이하자. 불자의 한해는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의 도리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은혜를 입은 불자로서 이제 알고 있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을 실천으로써 보답하려 한다.

2017년 원단

보광사 주지 화공 합장

ps. 2016년 한해, 보광사의 사사로운 일들을 마무리 하며, 2017년을 맞이하여 이곳 불자님들의 안녕을 불전에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잔손질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간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원만히 불단조성을 마쳤음을 알려 드리며 이 기회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포틀랜드 보광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미주분원 포틀랜드 보광사  
1921 SE 174<sup>th</sup> Ave. Portland OR 97233  
전화: 503) 760-4497  
[www.bokwangsah.org](http://www.bokwangsah.org)